

## 鄭德龜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강연회 개최

### 高油價時代 대응을 위한 에너지 政策課題와 推進方向

한국에너지협회의회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7일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하여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 에너지다소비업체 및 사회단체, 에너지공급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가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의 특별강연과 김홍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VA, ESCO사업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주)새한 구미공장과 LG석유화학(주) 여수공장에서 에너지절약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이어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하여 에너지사업자를 대표하여 (주)한화/에너지 우완식 부회장과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표한 LG석유화학 이정호 사장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의 소감발표와 VA, ESCO사업 참여의향서 제출이 있었다.



▲ 에너지절약 시책 소감발표를 하고 있는 (주)한화/에너지 우완식 부회장

이번 강연회는 최근 고유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다가올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하여 21세기의 튼튼한 국가경제 기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저소비형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격제도 개선방안과 에너지절약지원 시책방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저에너지가격을 유지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유인이 미흡하였고, 또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식이 약화된 것이 우리 에너지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에너지가격체계 변화와 에너지절약 투자지원시책 등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국제유가와 국내 에너지가격의 연동과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국제유가 급등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우리의 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기점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WEC 99년도 집행이사회 폴란드에서 열려

한전 고인석 전무 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미래 세계 에너지 보고서 발표

WEC 99년도 집행이사회가 지난 9월 20-23일까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는 정근모 아주대 교수,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한호섭 이사장 외2명, 에너지관리공단 김호기 본부장, 한국전력공사 서중석 처장, 에너지협의회 장기현 사무국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66개 회원국 및 8개 국제기구에서 약490명이 참석하여, 전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집행이사회, WEC가 2000년 1월에 밀레니엄 리포트로 발표할 “미래세계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Tomorrow’s World Revisited) 미니 심포지엄 (본보 김호기 본부장 기고문 참조), 청정화석연료 시스템에 대한 워크샵을 포함한 ‘폴란드 에너지날’ 행사, 亞太지역 회원국 회의, 회원국 사무국장 회의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WEC의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선출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 회원국 지역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

- 亞太지역 : 전력거래메카니즘 연구 등
- 에너지정보시스템(GEIS) 기능 확대
-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에너지기구의 DB와 연계 등
- 장기·지역 연구과제 강화
- 밀레니엄 리포트 “미래 세계를 위한 에너지”(ETW) 발표 (2000. 1월)
- UNDP/UNDESA와의 공동연구 “세계에너지평가”(World Energy Assessment) 작성 등
- WEC 활동 및 연구결과 홍보
- GEIS 시스템 및 World Energy Fax를 통해 회원국 및 언론 등에 적시 홍보 등
- 대 회원국 서비스 강화
- 국내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운영지침서 작성, 정관 및 부칙 개정 등

○ 2000년도 예산안 확정

항 목		금 액(천\$)
수 입	회원국 년회비	950
	대기업 후원금	217
	기 타	190
	소 계	1,357
지 출	사 업 비	583
	본부직원 급여	571
	사무실 임대료	120
	기 타	118
	소 계	1,392
초과지출(적자액)		(35)

※ WEC Foundation에 약73만 파운드 ('98년말) 별도 운영, 이자수입은 연간예산에 편입 사용

○ 2000년도 회원국 년회비

- 99년도 수준으로 동결 (98년이후 계속 동결) -한국 : 29,900파운드
- 신규 사업비는 총회수입금 및 대기업 후원금으로 충당

(現 집행이사회 의장 J. Adam의 선거공약)

○ WEC 신규 회원국 가입 : 총회원 95개국

- 바레인 신규 가입
- 잠비아 등 3개국 년회비 미납으로 제명
- 집행이사회 부의장 등 임원 선출
- 아프리카 지역담당 부의장에 이집트의 Dr. El-Sharkawi 선출

※ WEC는 의장 1명, 부의장 5명으로 구성

- 상임 (행정, 기획, 연구) 위원회 위원 신규 선출
- 행정 : 한전의 고인석 전무 선임 (박용남 前전무와 교체, 임기 2001)

- 기획 : 케냐, 터키 대표 각1명 (임기 2002)

- 연구 : 캐나다, 인도 대표 각1명 선출 (임기 2002)

○ 2000년도 집행이사회

- 기간 : 2000. 11. 20 - 24

- 장소 : 인도 뉴델리

○ 2001 총회 및 집행이사회

- 기간 : 2001. 10. 20 - 25

- 장소 : 부에노스 아이레스

- 주제 :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 시장의 과제 "Energy Markets : The Challenges of the New Millennium"

○ WEC 본부 인력 충원 및 재구성

-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1명
- 연구, 기획, 정보서비스, 회원국 관리 매니저 각1명

## WEC 국내위원회 사무국장 회의

- WEC 사무총장 보고
  - WEC 본부 조직 개편 및 사무국 이전
  - 2000년도 사업전개 방향 및 예산수립 내용 설명
- WEC 본부 및 회원국간 정보교류 방법 분석
  - M. Pilegaard (덴마크 사무국장) 보고
- WEC 활동 참여로 얻게되는 편익
  - J-R Frisch (프랑스 사무국장) 보고
  - 他국제기구에 대한 비교우위, 접근방법 및 운영시스템의 특성, 주요활동 내용을 3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WEC 본부 직원의 해외 홍보 및 회원국 국내위원회의 운영지침서로 활용할 계획 (99년말 발간 예정)
- WEC Annual Report 발간시 연도표기 방법 및 편집에 대한 한국측 의견 제시

## WEC 아태지역 회원국 회의

- 아태지역 '전력거래 메카니즘 연구'
  - Steering Committee 회의 개최 : 한전 정상진 시장조성팀장 참석( '99. 7. 26, 홍콩)
  - 2000. 2월말경 홍콩에서 보고서 발표 워크숍 개최 예정
- 아태지역 에너지포럼 개최
  - 시기 : 2000. 10. 18-19
  - 장소 : 동경
  - 주제 : Energy and Environment in the 21st C--Challenges and Cooperation
  - 주최 : WEC 일본국내위원회
  - 한국측 발표자 4명 추천
- WEC/IEA Symposium on Renewable

## Energy 제안

- 제안국 : WEC 중국국내위원회
- 시기 : 2000. 4월말/5월초
- 공동이해(JI)/청정개발메카니즘(CDM) 프로젝트 제안
  - WEC 뉴질랜드 국내위원회
- 아시아지역 에너지시스템 통합방안 발표
  - New Developments in ASEAN Gas Grid (말레이시아)
  - North Asia Gas Grid : 에너지관리공단 김호기 본부장

## 폴란드 에너지자원 현황

- 매장량 규모
  - 무연탄 (Hard Coal) : 547억톤 - 발전용 70%, 코크스용 30% (97년말)
  - 갈탄 (Lignite) : 141억톤 (97년말 현재)
  - 천연가스 : 1,426억<sup>m</sup> (97년말 현재)
  - 석유, 수력 등 기타자원 부존량 미미
- 전력산업
  - 시설용량 : 33.8 GW (1998년)
    - 석탄화력 : 94%, 수력 : 6% (주로 양수발전)
  - 97. 4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규제청 (Energy Regulatory Authority)을 발족하고 에너지부문 개혁정책 추진
  - 발/송/배전을 완전 분리하고, PSE社가 송전부문을 전담하고 32개 발전회사 및 33개 배전회사의 지분을 소유
  - 99. 6월 전력산업민영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98년 CHP Krakow社를 최초로 민영화. 프랑스 EdF에 지분 55% 매각
  - 2002년 말까지 전력산업민영화 완료 계획. 일부 회사는 정부가 상당지분 계속 유지